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
	박성준 전화: 885-6756, 010-3795-0116 이메일: december@snu.ac.kr

한국IUGG위원회, 지구과학 분야 세계 최대의 학술대회 IUGG 총회 국내 유치 성공

- 한국IUGG위원회(위원장 이상목 서울대 교수)는 지난 7월 18일(현지시각) 독일 베를린에서 2027년 제29회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(IUGG :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) 총회(General Assemblies)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전해왔다.
- 한국IUGG위원회는 그간 주요 인사 방문, 유치지지 서한 발송 및 IUGG 제28차 총회에서 지속적인 차기 회의유치를 위한 활동에 진행했으며, 이상목 위원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으로 강력한 상대인 미국 지구물리학회와의 격전 끝에 37개 투표 회원국 중 22표를 득표해 유치 성공을 이뤄냈다.
- 이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28회 총회는 7월 11일~20일 10일 동안 열렸으며 약 5,000명이 참석했다. 이 같은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경우 260억에 가까운 생산 및 소득 유발효과 등 큰 경제,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4년마다 개최되는 112년 전통의 IUGG 총회는 2003년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

24년 만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된다. 지난 2003년 일본 개최 때는 천황이 참석하여 개최식 축사를 진행한 바 있다. IUGG는 전 세계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나누며 국제적 홍보 및 조정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다. 이번 유치로 확정된 차기 학술대회는 2027년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□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 교수는 “이번 제29회 IUGG총회 유치는 개발도상국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의 포석” 이라고 전했다.

□ IUGG는 1919년 창립된 가장 오래된 지구과학 전 분야 및 우주과학을 대표하는 국제학회로 UN ISC 산하기관이며, 우리나라는 1960년에 가입했다.

- 한국IUGG위원회: <http://www.iugg.or.kr/>

- 베를린 제28회 IUGG 총회 개최 홈페이지: <https://www.iugg2023berlin.org/>